

# 회계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025년 8월 16일 성경 워크숍



# 영적 아버지를 알아가는 여정

우리에게는 육체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적인 아버지를 모르는 '영적 고아'로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 아버지를 발견한 자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내 아들이, 내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 회개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하나?"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상입니다.

## 잘못된 이해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목을 나열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 올바른 이해

회개(μετάνοια)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회개의 열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닌 변화된 삶**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이 따릅니다.

오늘 남성들이 회개하며 우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과 만남의 눈물**이었습니다.





# 죄의 본질: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 하늘의 반역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 일부 천사들의 반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추방되었고, 사탄(대적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 에덴의 유혹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인간에게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닌, 신뢰와 사랑의 시험이었습니다.



##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조가 이미 죄입니다.

# 유혹과 죄의 차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죄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보는 것

1

여자를 보거나 선악과를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일 수 있습니다.

2

## 생각하는 것

보고 난 후 음탕한 생각을 품거나,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죄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 행동하는 것

3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죄의 완성일 뿐입니다. 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결정적입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마음으로 동의하는 순간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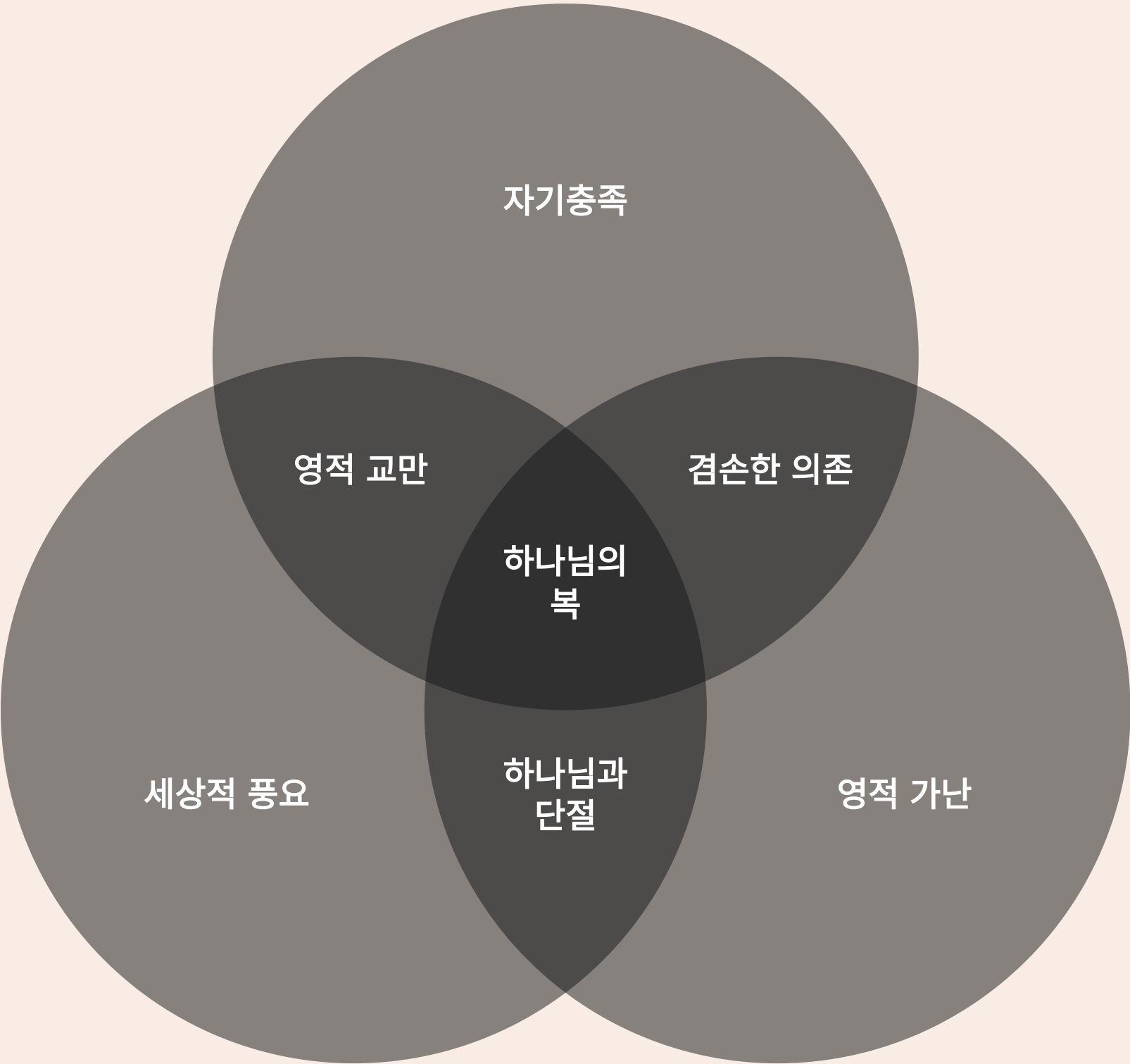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닌 영적인 겸손과 의존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 세상의 풍요 vs. 영적 가난함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부, 권력, 건강, 외모)는 종종 영적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마태복음 19: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 풍요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 영적 아버지와 만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영적 아버지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진심으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심이로다" (시편 145:18)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복이 있도다. 나를 바라보았으니..."



영적 아버지를 만난 자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로와 가르침,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CHOICE

## 최후의 심판과 영생의 선택



###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사탄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영원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 예수님의 선언

이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예수님은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의 선택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회개와 심령의 가난함: 영적 여정의 시작

## 핵심 메시지

회개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 교만이 아닌 겸손과 의존의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이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3)



## 오늘의 도전

영적인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 호주에서, Kevin 올림